

1991년 북한 「춘향전」과 50년대식 문화 계도

김경웅 / 통일원, 정치학 박사

1. 「주체문화」와 통일문화의 지향

1991년 10월 7일 일본 후쿠오카 시민회관. 북한의 '민족가극'인 「춘향전」이 무대에 올려졌다. 국립평양예술단의 출연진은 배우 외에 오케스트라 23인, 남녀 합창단이 각각 17명씩 어우러졌다.

이 작품은 전래의 춘향전을 토대로 하여 1988년 4월부터 20여명의 작곡가들이 '집체적'으로 만들어 이듬 해 1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제1장 '광한루의 봄'으로 시작, 제7장 '사또 생일잔치'와 '고생끝에 락이 왔네'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편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굳이 적자면 도령이 춘향을 이별하고 떠나갈 때 대방창(남녀 혼성합창)으로 "아 빈부귀천 원썩로니"라고 외치는 정도이다.

그런데 '춘향전 노래집'을 보니 이 민족가극의 제작 배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다.

"...지도자 동지(김정일)의 현명한 영도 밑에... 친리혜안의 예지로 민족가극 「춘향전」이 새롭게 창작 완성되어...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세상에 나왔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극 예술의 기본은 노래이며, 가극은 노래로 사람들이 사상·감정과 생활을 그려내어 극을 엮어가는 예술이다"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관극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필자는 예술이 정치체제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적어도 예술가들 또는 예술 동호인들은 같이 아파할지언정 결코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극기는 북한 문화 예술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북한의 문화 예술은 개념 규정성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길래 정치이념과 체제로부터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한 제약을 받고 있

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영향관계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나아가서는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필히 안게 될 문화적 부담과 분단 후유증 문제를 통일문화의 지향이라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대비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회주의 문화'의 개념과 본질적 특징

북한의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른 분야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독특한 것이며, 북한사회의 성격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다.

북한에서 나온 최신판 「현대조선말대사전」은 이렇게 문화를 풀이하고 있다.

① 역사 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 문화는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도덕과 풍습 등의 발전수준을 반영한다. 문화는 사회생활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②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③ 현대적 요구에 맞는 문명한 생활양식

북한의 '문화' 정의는 다른 사전류에서도 요약·정리되어 있다. 즉 문화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가치있는 재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통일로써 나타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때는 정신문화로 국한되지만, 문화란 "물질적 부의 생산방식에 기초하여 발생, 발전하여 그 성격과 내용은 사회경제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여 물질문화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은 '사회주의 문화'라는 개념으로서 보다 구체화된다. 사회주의 문화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 쥐고 다음에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코민테른 강령」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문화혁명의 관계를 논하면서 문화개조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의 주도적 역할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받아 나뉘대로 추가적인 해석을 곁들이고 있을 뿐이다.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옮겨보면, "사회주의 문화는 과거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전통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을 선수로 한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는 인류문화 발전의 높은 단계로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공산주의적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당성이란 “당의 유일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으로서의 부장 및 혁명화”를 지칭하는 것이며, 로동계급성은 “가장 진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체현시키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입장과 혁명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민성은 문화가 “인민대중에 의해 창조되며 발전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문화적 본질로서의 ‘공산주의적 당성’

북한에서 사회주의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첫번째 꼽고 있는 공산주의적 당성 원칙은 다른 특성들과 함께 모든 문예분야의 기본틀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공산주의적 당성의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당성은 온갖 반당적 및 반동적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공산주의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며, 둘째 오직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가려낼 수 있으며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셋째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당 중심의 문화’ 서술은 김일성의 교시로 다시 강조되고, 구체적인 이론서에서 확인된다.

즉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설불굴의 혁명정신이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에서 당성을 훌륭히 구현하는 문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구현하는 문제와 밀접히 통일되어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통하여 당성은 가장 철저하게 구현된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여 당중앙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곧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라고 가르쳤다”고 이론 아닌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공산주의적 당성이란 곧 문화적 본질을 당 중심으로 접근하여 결국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귀착점은 문화적 본질의 다른 원칙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 문화적 무기로서의 '로동계급성'

사회주의 문화에서 각별히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계급의식을 함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 역시 “계급사회에서 계급 밖에 서 있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급을 초월한 사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문화의 계급 투쟁에 대한 ‘무기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회계급적 처지를 떠난 사상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을 초월한 문학·예술이란 있을 수 없다”는 표현이고, “계급성은 가장 선진적·계급적인 로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로동계급성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이 문화의 본질적 특성 중 두번째로 지적한 로동계급성은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문화, 그리고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급투쟁을 하는 문화”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 문화를 계급투쟁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무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대중과 연계를 위한 '인민성'

사회주의 문화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성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이다.

즉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인민의 생활을 체험한 작가, 예술인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고 인민대중에 복무하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한다.

김일성의 지적은 지난날 모택동이 언명한 내용에서 그 의도를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모택동은 문화사업 전반에 걸친 대중성의 확보를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당이 주도적인 통일전선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은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투철한 문화 노동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사회주의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제시한 공산주의적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김일성의 교시는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인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4) 그밖의 ‘고유한 특성’

앞에서 나온 사회주의 문화의 세가지 본질적 특성 이외에 중요한 특성으로 민족적 특성과 사상성·예술성의 관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들은 북한 원전에서는 각기 ‘문학·예술의 민족적 특성’ 및 ‘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북한 문화 일반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요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적 특성이란 “고유한 생활과 정서적 특질들이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과 기호에 맞는 예술적 형상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 아래, 민족적 특성이 “주체를 세우는 기본방도”로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적 특성은 결과적으로 인민성의 원칙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민족적 특성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화부문의 작가·예술인들은 민족적 특성의 내용을 작품에 면밀하게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은 따로 떼어진 개념에 아니라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것으로 파악한다.

즉 예술성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특성으로 예술적 형식과 수법에서 흘러나오며, 사상성은 예술성과 조화롭게 결합됨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상미학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예술 작품에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화가 ‘생활과 투쟁의 힘있는 무기’가 된다는 논리는 여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남북이 통일을 논하기 앞서, 문화적 공존조차 모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것이다.